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1주일
제32권 39호(나해) 2012.8.26

[묵상]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거슬러하던 제자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으려했다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었으련만
스스로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떠나게 했을까?
생명을 주지만 귀엔 거슬리는 영적인 말씀,
쓸모가 없지만 귀엔 늘 술깃한 육적인 것.
당장에 거북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좋아하기에.....

영이며 생명인 말씀을 주시려는 예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거북해하면서
투덜거리는 저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지금은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여
수군거리기도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지니신 주님을 두고 떠나는
어리석은 일만은 하지 않으렵니다.

저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당신을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제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제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제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중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김창훈 & 편성근
특전미사	(생)오현희 콜롬바 & 오진희 아네스, 최태훈 아오스딩,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박형진 레오
주 일	(연)이정용 야고보, 박영춘 안토니오, 김풍길 바오로, 고준희 제임스, 김시형 시릴로, 김창운 & 편성근, 전길례 모니카 & 배정환 베드로, 공세실리아
낮 미사	(생)엄세중 그레고리오, 엄효정 모니카, 윤영훈 바오로 이상훈 프란치스코, 민영준 마르코 & 민석준 토마스 가정, 정인식 베드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여호수아기(Joshua) 24,1-27,15-17,18느

화답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구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악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깃들인 이를 구원해 주신다.○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 주시니, 뼈마다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젖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젖값을 벗으리라.○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5,21-32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 음 요한(John) 6,60-69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83	183	208
봉헌	259	259	264
성체	284	284	280
파견	195	195	19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하느님 말씀과 교회

교회의 삶 안에 늘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교회인 그분의 몸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이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요한 14,26 참조).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새 생명의 원리요 변함없는 원천이십니다(요한 3,5-8; 로마 8,1-13 참조).”

게시 현장「하느님의 말씀」에서는 혼인적인 대화라는 성경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 신비를 표현합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신부인 교회와 끊임없이 대화하시며, 성령께서는 복음의 생생한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세상 안에 울려 퍼지도록 하시고, 신자들을 온전한 진리 안으로 이끄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히 머물도록 하여 주신다(콜로 3,16참조).”

경청의 기술을 가르치는 스승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교회가 듣고 있습니다.”라고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게시 현장「하느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경건히 들으며 신실하게 선포하는 거룩한 공의회는…….” 이것은 실상 교회의 삶에 대한 역동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로 공의회는 교회를 정의하는 한 가지 측면을 지적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부터 언제나 새로이 자신의 여정을 위한 지침을 찾아냅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포되고 경청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사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것이다. 나는 나를 너에게 준다.” 인간이 받아들이고 응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은총에 힘입어 요한 복음서 서문에서 말하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계속>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

오래전 보좌신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례를 위한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이 근처 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합니다. 여기 성당에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성당에 다니게 되면 신자들이 우리 가게에서 신발 하나라도 더 사주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루하루 예비자 교리를 받으면서 제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내 욕심을 채우려는 부정한 마음으로 성당에 왔는데,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형제님을 신발을 통해서 부르신 것 같은데요. 신발을 많이 팔기 위해 성당에 오게 된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님께서는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진정한 주님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좋은 신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 후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분은 훌륭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사람들을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풍족함,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한껏 누리면서 사는 삶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 삶의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과 안전한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길을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나는 길이다.”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찾고 그분을 따라만 가면 될 것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가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알아보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당에 다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기적을 보고, 빵을 보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한 유혹이 많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이진향 아네스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김숙희 유소사 세실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송현식 바오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제물봉헌자			하미/카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LA대교구 연례 다민족문화를 위한 미사에 초대합니다.
 - 일시 : 9월8일(토) 오전 10시(15분전까지 도착바람)
 - 올해의 주제 : "Rooted in Christ-Firm in the Faith"
 - 동정마리아 탄생축일(9월8일)미사와 함께 진행
 - 주례사제 : 호세 고메스 LA대주교
 - 장소 : LA대교구 천사의모후 주교좌 대성당 (555 W. Temple St., LA 다운타운)

-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8월25일(토) 오후 6시 박형진(레오)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신앙인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남가주 제35차 남성 꾸르실료 수료자 환영 울뜨레아
 - 일시 : 오늘 주일(26일) 오후 7시 강당
 - 수강자 : 오영섭 스테파노, 윤영훈 바오로, 금영도 베드로, 김용 스테파노 * 봉사자 : 현석주 아오스딩
 - 문의 :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 성모신심 미사
 - 9월1일(토) 오전 8시30분

- ◆ 예비자 교리반 다음주에 개강(및 신자 재교육)
 - 환영식 : 9월2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 성전 (세례신자들 중에 교리를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세례식 예정 : 2013년 부활절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 ◆ 어린이복사단 모임
 - 일시 : 9월2일(주일) 학생미사후 신부님 집무실
 - 주일학교 복사단원은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 문의 : 본당수녀님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 M.E.소식
 - 남가주 ME 첫주말 참가부부 신청받습니다.
 - * 일시 : 9월14일(금)~16일(주일) 2박3일
 - 남가주 ME 30주년 책자발행 협조건 : 1차(1982년)~43차(1999년) 수강자들의 단체사진, 명단, 행사사진 수집
 - 문의 : 본당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 청소년분과위 친목모임
 - 일시 : 9월9일(주일) : 오후 4시
 - 장소 : 친교장(BBQ 파티)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한국학교 교사, 배론청년회 회원, 자모회 간부(부부동반하셔도 됩니다.)
 - 문의 : 청소년분과장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 홍보분과의 산하단체인 홈페이지 동호회 발족
 - 성당 홈페이지에서 사진과 글로 소식을 나누는 모임. 관심있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홈페이지(<http://103skec.org>)의 알림게시판 참조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딩 ☎(310)594-9472

- ◆ 성령쇄신대회 CD 판매합니다
 - 제25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의 CD구입을 원하는 분은 사무실 또는 본당 성령기도회장(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에게 문의하십시오. * 가격 \$20

☞ 성당안에서 어린자녀들 행동에 부모님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의 시선밖에서 행동하는 어린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돌로 된 설치물에 넘어져 다치기라도 한다면...아찔합니다!
- 주방을 들락거리며 냉장고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장난 (냉장고 문을 꼭 닫지않아 슬쩍 열려진 상태...)
- 성체조배실에서 뛰어다니며 들락날락...
- 성전안에서 제단에 오르락 내리락, 세례대에 오르락 내리락...
- Fire Alarm(화재경보기)를 쳐서 소방차 출동 직전까지 가는 경우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26일(주일) : 토런스 서3반(비빔밥+콩나물국 \$3)
 - 9월2일(주일) : 레이버데이 연휴(친교자리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강숙경	강순복	권오상	김광자	김우용
	김정엽	김정웅	김종문	문충한	박광자	박근식
	박선희	박음전	반비오	송재훈	송준규	신순철
	안태갑	엄세종	오세원	유근태	유선식	윤영훈
	윤철	윤희동	이경태	이근태	이용식	이우성
	이재승	이재용	정규숙	정상문	정충로	조혜정
	지경수	채양석	최상만	최영신	최원석	최재은
합계 : \$6,530						
미사헌금 : \$2,731						

성전헌금	강미순	강숙경	강순복	권오상	김광자	김우용
	김정엽	김종문	문충한	박광자	박선희	반비오
	신순철	안태갑	엄세종	오세원	유선식	윤영훈
	윤희동	이경태	이근태	이용식	이우성	이일길
	정규숙	정상문	정충로	조혜정	지경수	채양석
	최상만	최영신	최원석	최재은	최진수	최희태
	한장환	한창주				
합계 : \$4,790						
감사헌금 : 박윤지 백삼위서예반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주일학교 2013학년도 Teacher Lesson Plan 세미나

- 일시 : 9월9일(주일) : 낮 12시~오후 4시 강당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장 ☎(213)258-8665

한국학교 설명회

- 일시 : 9월9일(주일) : 학생미사후 오전 10시30분 강당
- 대상 :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의 한글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한국학교 교장 김화경 스텔라 ☎(310)464-7490

연세어학당에서 한국어 교사과정 이수

- 정현숙 세레나 / 김해선 엘리사벳 두 자매가 연세어학당이 주관한 한국어교사과정(여름학기18시간)을 이수하고 백삼위한국학교에서 앞으로 1년간 교사로 봉사합니다.
- 한국학교에서 보조교사 모집중입니다.

한국학교 2012/2013학년도 등록 받고있습니다.

- 등록시간 : 주일학생미사 · 11시미사 전후

노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남명자 데레사 365-2542 8/14(화) 반미사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석안젤라, 민안나 634-9631 8/11(토) 오후 7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8/15(수)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8/12(주일)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심재은 클레멘스 999-5808 8/11(토) 오후 6시 성당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진영선 크리스티나 781-0856 8/8(수)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1	오창애 안나 974-2857	송기철 루카 974-2857 8/17(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미경 스테파니아 634-6923 8/7(화) 오전 10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8/21(화) 반미사 오후 7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8/11(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8/19(주일) 오전 10시 윌슨파크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박의혜 세실리아 541-0700 8/17(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8/9(목) 오후 8시 성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8/19(주일) 오후 2시 성당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반나영 세실리아 404-206-2911 8/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8월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남가주 소식

영성생활 특강

- 일시 : 8월30일(목) 오후 7시~오후 9시
- 장소 : 신원식 요한 신부(예수회 한국관구 관구장)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회관 ☎(323)731-4433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과의 봉헌 및 봉헌 갱신미사

- 일시 : 9월7일(금) 오후 7시
- 장소 : LA 성 바실 천주교회 본당(637 Kingsley Dr.)
- 대상 : 전신자 * 준비물 : 묵주와 가톨릭 성가집
- 문의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미주평의회 회장 주배석 비오 ☎(818)571-8438

제16회 남가주한인 가톨릭 미술가협회 정기전시회

- 일시 : 9월15일(토; 오프닝리셉션 오후5시)~28일(금)
- 주제 :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 전시내용 : 그림, 사진, 설치미술, 조각, 공예 등 20여점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윌셔블러바드 #502, LA)
- 문의 : (213)365-8285

* 빌딩 뒤와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성 이나시오 19번 영신수련 피정자 모집

일상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으로의 초대.

- 기간 : 2012년 9월~2013년 6월
- 회비 : \$700(도네이션으로 봉헌됩니다.)
- 주관 : 로올라 영성센터(오렌지카운티)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생선이 사람을 낚다.

사제 연피정을 다녀왔다. 장소는 일본 가톨릭 교회의 1번지라고도 불리는 나가사키의 우라카미(浦上)였다. 주님의 이끄심으로 참 훌륭한 지도 신부님을 만났고, 수많은 강의 중에 특히 심금을 울렸던 이야기가 있어서 나눌까 한다. 피정은 끝났지만, 지금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은총을 체험한다.

때는 30년 전, 신부님이 우라카미 천주당의 보좌신부로 있었을 때,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매일 새벽같이 사제관 문 앞에 금방 잡아올린 듯한 생선이 놓여있더라는 것이다. “웬 생선이 아침 댓바람부터 놓여있냐”며 의아해했지만, 그 일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누가 생선을 가져오는지 도저히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하루는 작정하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다렸다고 한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직 어둑어둑한 성당 오르막길을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끌고 올라오더라. 엔진 소리에 신부가 잠을 깰까 봐 시동을 끄고 오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는 실고 온 생선 봉지를 사제관 문 앞에 살포시 놓아두고는 다시 소리 없이 오토바이를 끌고 내려가더라. 신부님은 이 모든 것을 창틈으로 빠르게 내다보고 있다가 후다닥 달려나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신자들 얼굴도 제대로 모를 때였다. 알고 보니 본당 신자였고,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다. 밤새 고기를 잡아서 집에도 들리지 않고 바로 성당으로 온 것이었다.

“아니, 왜 이렇게 아침마다 고기를 사제관 앞에 가져다 놓으세요?”라고 물었더니, 이러더라. “신부님, 선행을 베풀 때는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니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옆집에 홀로 사는 할아버지였고, 또 하나는 신부님이었습니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묘한 기분이 신선한 새벽공기와 함께 초임 신부의 가슴을 흔들어대었고, 이후로도 그 형제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려니 하고 가슴 한쪽에 고이 접어서 살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사제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형제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왔단다.

지금은 20년째 교정사목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어부 형제님의 비릿하고도 소박한 마음을 전한 덕분에 많은 수인이 하느님께 마음을 돌렸다고 한다. 30년 전, 어느 새벽녘에 나누었던 한 신자 분과 젊은 신부의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신앙의 해’를 지내면서 찾아야 할 보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기억하는 마음이었다. 사랑이었다.

◆김기영 안드레아 신부 / 부산교구 일본 히로시마 선교

~ ~ ~ ~

☛ 대부분의 사람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연옥에서 벌을 받고난후에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느님이 자비로운 분이시라면 우리를 굳이 무서운 연옥벌을 받게 하지않고 바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더맞지 않을까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흑인 노예에게 해방을 선포하지만, 자유의 상징인 선거권을 주는 것은 망설입니다. 그래서 보좌관 한 명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에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다리라고 여기기로 합시다. 그러면 말의 다리는 총 몇 개입니까?” 보좌관이 “5개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링컨은 말합니다. “틀렸소. 말의 다리는 4개요. 꼬리가 정말 다리가 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꼬리를 다리라고 부르더라도 꼬리일 뿐이요.”

링컨은 아무리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더라도 노예가 참으로 변화하여 자유인이 되기 전에는 노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연옥은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벌이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을 위한 변화와 정화의 기회이며, 하느님 배려이자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화와 정화는 고통이 따릅니다. 따라서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 고통(요한 16,21~22)으로, 베드로 사도는 금이 되기 위한 불의 제련으로(1베드 1,6~7) 이야기합니다. 성장과 완성을 위한 연옥의 불은 파괴와 멸망을 위한 지옥의 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도 연옥이라는 정화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남산성당 부주임